

보도시점 2026. 8.28.(금) 16:30 배포 2026. 8.27.(목) 13:30

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30)
 - 민간·공공부문 관참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30)
 - 훈련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All 케어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 최대75만원), 청년미래적금(+月 최대20만원 수준), 청년문화예술패스(+月 1만원 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년 쉬었음(15~29세 만명 <전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28> (7)367<△69>

현 청년세대는 **경력**(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여건**(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시점**(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입직·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AI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하는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①**디딤**, ②**이음**, ③**도약**을 정부가 함께 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취업 쏠 주기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① (취업以前: 디딤^{Build-Up})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1.2만명),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0.7만명)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7.5만명) 또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첫취업 도전 청년'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60→65만원)한다. **고용24**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AI 고용센터**를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쏙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5.8→6.7만명)하고, 취약청년의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0.6만명)도 본격 개시한다.

② (취업단계: 이음^{Match-Up}) 사람과 일자리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중견기업 및 ^{비수도권}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청년의 입·재직 및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중기부}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

(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50~100→60~100%)

(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0.2조원),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를 감면(산기은, 신보)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를 '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한다. 우선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와 더불어 현재는 KAIST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 (신산업)0.4만개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국토)0.4 (농업)0.7 (금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③ (취업以後: **도약^{Leap-Up}**)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Jump-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의 직장적응·경력 발전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계정보를 프리랜서 경력, 일경험 정보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 **커리어 뱅크**로 개편한다. 中企→대기업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하고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25%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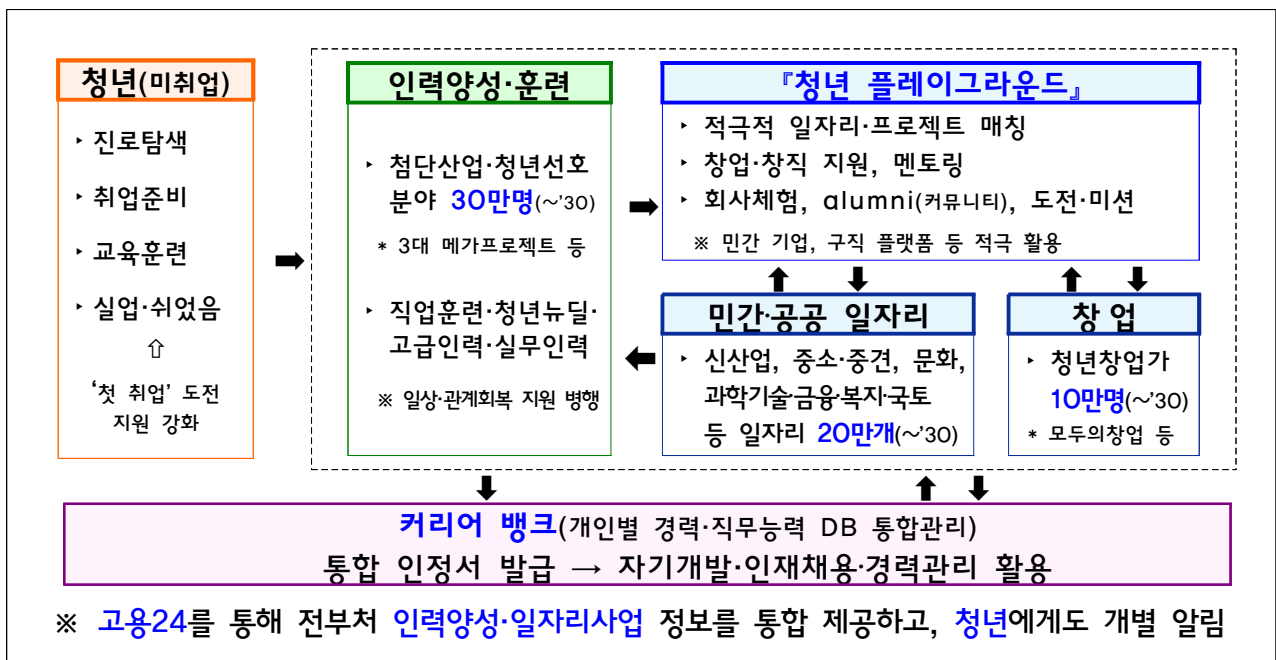
* (대상) ^{현행}만19~20세 → ^{확대}만19~34세 (횟수) ^{현행}생애1회 → ^{확대}매년

(분야) ^{현행}공연·전시·영화·도서 → ^{확대}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 ^{개정}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핵심 기대효과]

❶ 청년이 훈련사업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은 **커리어뱅크**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❷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하여 현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대폭 **상향(25%)**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지원대상·횟수·분야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 최대75만원), 청년미래적금(+月 최대20만원 수준), 청년문화예술패스(+月 1만원 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담당 부서 < 총괄 >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웅	044-215-2840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sin20219@korea.kr)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jwpark416@korea.kr)
		담당자	사무관	최종원	(jwchoi0622@korea.kr)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윤미	044-202-7440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himsseny@korea.kr)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mjoymj@korea.kr)
	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4-214-1710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jihyesim@korea.kr)
담당 부서 < 협조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민호	044-203-6267
		담당자	사무관	안나영	(animato1004@korea.kr)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책임자	과 장	우성훈	044-203-4220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seongep16@korea.kr)
		담당자	사무관	장재명	(woaud132@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미정	044-202-4820
		담당자	서기관	심성은	(shim315@korea.kr)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책임자	과 장	채경아	044-205-3902
		담당자	사무관	김범유	(ksky711@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소정	044-203-2511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youngjokim@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4-201-1711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gainlee@korea.kr)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044-202-3270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lch22@korea.kr)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044-202-3701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joo124@korea.kr)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총괄팀	책임자	팀 장	최철승	044-201-3626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solyaa@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지영	044-204-7440
		담당자	서기관	정익채	(doch3001@korea.kr)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mushroom92@korea.kr)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훈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gurygury37@korea.kr)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happysh89@korea.kr)